

삼성토탈, 낙뢰 사고로 가동중단

대산변전소 전력 공급 중단 ... 현대오일뱅크 포함 피해 속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삼성토탈을 비롯한 일부 석유화학공장이 낙뢰 사고로 가동을 중단했다.

7월23일 오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낙뢰가 잇따르면서 대산변전소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삼성토탈과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피해를 입은 공장은 정전 직후 비상 발전기를 동원해 주요 설비만을 가동하고 있다.

서산 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실종사고 및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23>